

## <토론 요지>

### :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 발전동향과 충남의 대응전략

강희정교수 (한밭대학교)

- 「중국 황·보하이 연해지구 발전동향과 충남의 대응전략」 논문은 중국의 각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권역별 광역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대상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추진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제시하고 있음
- 논문에서 제시한 대(對)중국 전략적 타깃지역은 크게 I 권역(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구인 징진지(京津冀)지구와 산둥성), II-1권역(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을 포함하는 동북3성), II-2권역(장쑤성-상하이시-저장성)으로, 충청남도와의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성, 미래 발전 잠재력 측면에서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봄
- 전략적 타깃을 보다 세부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타깃군에서도 몇개 지역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러한 점에서 충남 서해안지역과 인접한 중국 연해지역인 랴오닝성, 허베이성 연해지구인 탕산, 친황도, 창저우, 산둥성, 저장성 등의 특정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대(對)중국 교류의 시너지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대(對)중국 교류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담기구 설치와 ‘관산학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류 모델의 구축이 필요함
- 논문에서 제시된 대(對)중국 교류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은 대체적으로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잘 망라되어 있지만, 효율적인 교류 추진 및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 순위의 조정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의 제시가 보완 되어야함

- 한중FTA 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차이나 드라이브 전략’이 기대되며, 충남지역의 잠재적 특성이 잘 반영된 동시에, 여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의 수립·추진과 한중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